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Contents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캄보디아-태국 국경 분쟁 지속...양국 간 화물 병목 현상 장기화 우려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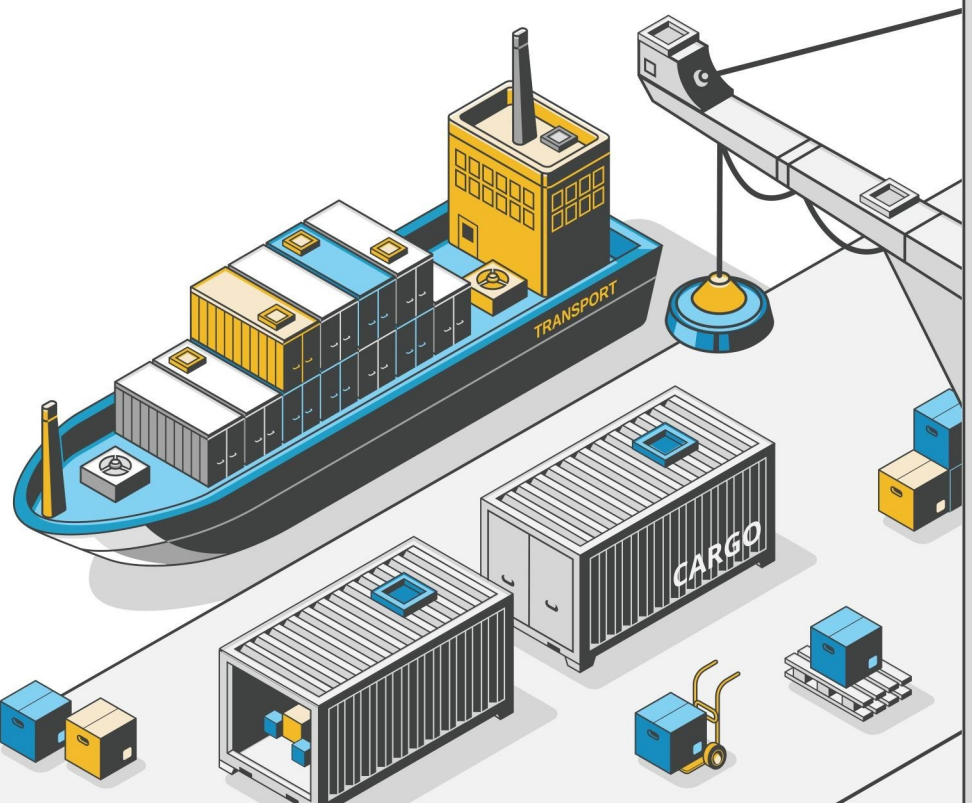
- 미국행 수요에 밀린 亞~남미항로, 물류비 상승 및 혼잡 장기화 우려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폭스바겐, 베니스 항에 차량 물류 허브 구축

▶ 공지사항

- 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』 모집 공고
- 『우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캄보디아-태국 국경 분쟁 지속 ... 양국 간 화물 병목 현상 장기화 우려

- ▶ 지난 5월 28일, 태국 우본라치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캄보디아-태국 간 국경 분쟁 발생
 -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, 해당 지역은 과거에도 반복적인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, 향후 총격전 재발 우려가 있음
- ▶ 태국 정부는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 검문소 운영통제 및 차량 통행 제한 조치 시행
 -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접경한 국경 검문소 일부의 운영시간을 기존 6:00~22:00에서 8:00~16:00로 단축함
 - 화물 통행 비중이 높은 싸깨오(Sa Kaeo), 반클렁룩(Ban Khlong Luek) 등의 검문소도 포함되어 물류 공급망에 일시적 차질 예상
 - 캄보디아 국경통행증 유효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으며, 대형 컨테이너 트럭 통행 또한 제한함
 - 이로 인해 트럭 대기 시간이 약 3~5시간 증가했으며, 일부 운송사는 1회 왕복 운행으로 서비스를 축소함

태국 국경 검문소별 제한 내용

국경 검문소 명	제한 내용
Chong Ahn Ma (Nam Yuen, Ubon Ratchathani)	주 2회 → 주 1회(목요일), 09:00~12:00
Sai Taku (Ban Kruat, Buri Ram)	매일 → 주 3회, 09:00~12:00
Chong Sa-ngam (Phu Sing, Si Sa Ket)	매일 → 주 3회, 09:00~15:00, 건축자재 운송 금지
Chong Jom (Kap Choeng, Surin)	매일 → 주 3회, 08:00~15:00, 건축자재 운송 금지
Ban Klong Luek (Aranyaprathet, Sa Kaeo)	08:00~16:00, 관광객·갬블러(gambler) 출입 금지, 통행증 유효기간 7일, 대형 화물차 진입 금지
Thai-Cambodian Friendship Bridge (Aranyaprathet, Sa Kaeo)	08:00~16:00, 대형 화물차 진입 가능
Ban Khao Din (Khlong Hat, Sa Kaeo)	08:00~16:00, 관광객·갬블러(gambler) 출입 금지, 통행증 유효기간 7일, 대형 화물차 진입 금지
Ban Ta Phraya (Ta Phraya, Sa Kaeo)	08:00~12:00, 대형 화물차 진입 금지
Ban Nong Prue (Aranyaprathet, Sa Kaeo)	08:00~12:00, 군 당국 재량으로 통행 허용 여부 결정
Ban Hat Lek (Khlong Yai, Trat)	08:00~16:00

자료: <https://www.bangkokpost.com> (검색일: 2025.06.09.)

- 이에 주요 운송사는 우회 경로 확보, 통관 체계 대응방안 모색, 운송 차량 확보 및 배차 조정 등 대응책 마련 중임
 - 특히 냉동냉장 식품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화물의 경우 품질 저하 우려로 운송 일정 조정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- 캄보디아-태국 국경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, 검문소 제한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
 - 우리 기업은 국경 검문소의 운영 제한 강화에 대비해 추가적인 물류 루트 확보 및 통관 제약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
 - 현지 검문소 운영시간 실시간 모니터링, 통관 규정 변동 사항 수시 점검, 운송사와의 협업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

미국행 수요에 밀린 亞~남미항로, 물류비 상승 및 혼잡 장기화 우려

- ▶ 아시아~남미 동해안(East Coast South America, ECSA)으로 향하는 해상운송 운임이 항만 혼잡, 장비 부족, 성수기 수요 증가로 인해 두 배 이상 급등
 - 아시아~ECSA 항로가 성수기에 접어들면서, 브라질 주요 항만인 산투스항, 이타포아항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을 중심으로 혼잡이 심화되고 있음
 - 브라질 리우 그란데항, 이타포아항, 산투스항, 페생항은 혼잡으로 인해 평균 선박 대기 시간이 2~3일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항은 선석 대기 시간이 1~3일 가량 소요됨
 - 여기에 더해 '25년 1월부터 시작된 브라질 세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 발생했으며, 최근에는 브라질 전 항만에서 20피트 컨테이너(TEU) 부족 사태가 심화되어 항만 병목 현상이 더욱 악화됨
 - Platts에 따르면, 아시아~ECSA 항로의 스팟 운임은 불과 2주만에 FEU당 2,360달러에서 4,700달러로 급등했으며, 주요 원인으로 컨테이너 장비 부족, 항만 혼잡, 선박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

남미 동해안(ECSA) 및 서해안(WCSA)의 주요 항만 현황



자료: <https://www.kestrelgloballogistics.com/regions/latin-central-south-america> (검색일: 2025.06.08.)

- ▶ 아시아~美 항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일부 선박이 ECSA 항로 대신 美 항로에 재배치되며 ECSA 노선의 선박 감소와 결항률이 크게 상승해 공급 부족 심화
 - 최근 HMM이 아시아~인도~동남미 항로에서 일부 항차를 취소했는데, 이는 美 관세 유예에 따라 중국발 화물수요가 급등하면서 해당 선박을 미주 노선으로 재배치 했기 때문임
 - 이 외에도 Hapag-Lloyd, COSCO 등 일부 선사들도 2분기 중 해당 노선의 기항 횟수를 축소하거나, 선박을 각각 1/3, 1/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아시아~ECSA 항로의 공급은 더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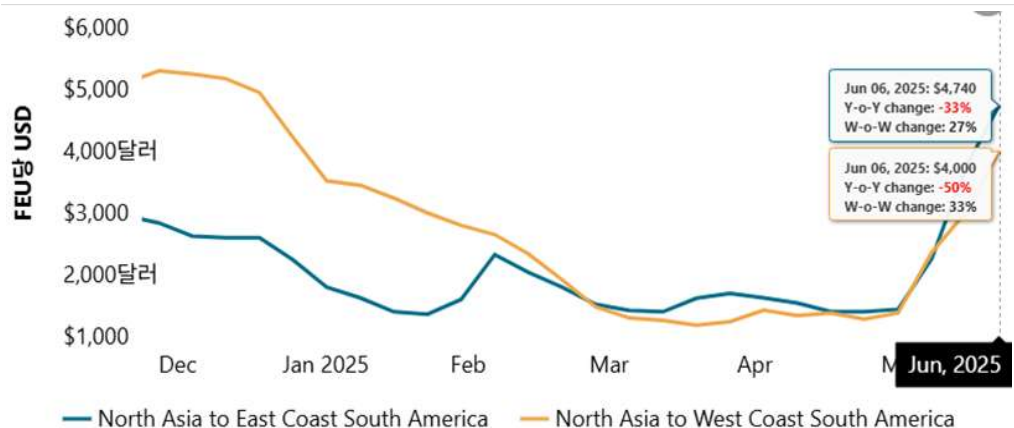
타이트해짐

- 이에 지난 5월 아시아-ECSA 노선은 전체 선박의 12.6% 수준(약 25만 TEU 규모)이 결항했으며, 이는 4월 결항률 2.8% 대비 한 달 만에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함

➤ 이러한 선박 부족 사태를 반영해 선사들은 성수기 할증료(PSS)를 잇달아 도입해 고운임 스팟화물에 밀려 계약화물 롤오버 사태 빈번히 발생

- CMA CGM은 지난 5월 30일 공지를 통해, 7월 1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시아 發 ECSA 向 모든 화물에 대해 FEU당 2,000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함
- 이에 따라 일부 선사는 스팟운임 화물을 우선적으로 선적하고 있으며, 계약화물은 선박 부족과 장비 미확보로 롤오버(roll-over, 예약했지만 선적되지 못하는 상황) 되어 선적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 높은 운임으로 재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됨

북아시아발 남미 동해안(ECSA) 및 서해안(WCSA)의 스팟요금 추이



주: Platts 북아시아-남미 동해안 및 서해안 컨테이너(FEU) 스팟 운임 (USD 기준)
자료: Platts, S&P Global (검색일: 2025.06.08.)

➤ 한편, 남미 서해안(West Coast South America, WCSA) 항로도 ECSA와 유사한 상황으로 최근 운임이 급등하고 칠레, 콜롬비아, 페루 주요 항만에 혼잡 발생

- Platts 지수에 따르면, 북아시아~WCSA 항로의 스팟 운임도 지난 2주간 63% 급등해 FEU당 4,000달러에 달했으며, 일부 포워더는 최대 5,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언급함
- 또한 CMA CGM은 아시아발 WCSA, 중앙아메리카, 카리브해 화물에 대해서도 성수기 할증료(PSS)를 두 차례 인상해 6월 22일부터 FEU당 2,000달러를 부과할 예정임
- 칠레 발파라이소항과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항은 현재 경미한 운영 차질 상태(slightly

disrupted)로, 평균 선박 대기 시간이 각각 3일, 4일 수준임

- 반면 페루의 칼라오 항은 현지 도로 폐쇄로 인해 심각한 차질(heavily disrupted)이 발생한 상태로, 항만 진입 시간은 평시 대비 약 30%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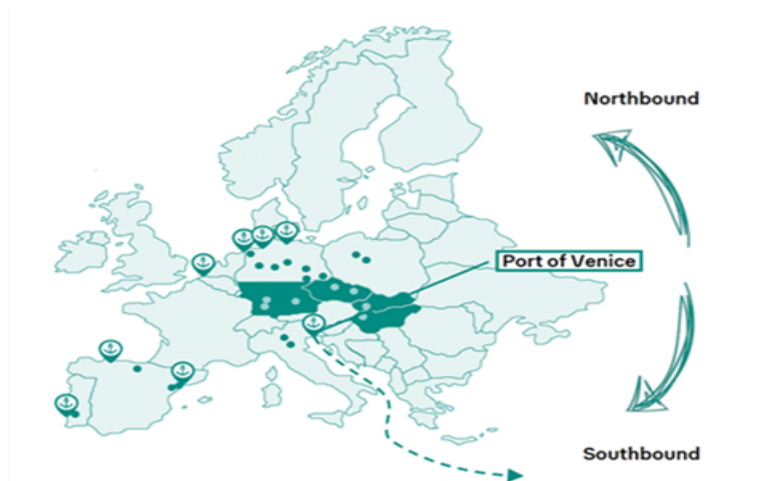
➤ **한동안 아시아~남미 항로는 스팟 시장 중심의 선박 배정과 운임 증가 지속이 예정되므로 우리 기업은 특정 노선 및 선사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응책 마련 시급**

- 현재 CMA CGM을 비롯한 선사의 장비 부족 현상이 남미 해안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어 항만 혼잡과 더불어, 전반적으로 남미 항로는 스팟 시장 중심의 선박 배정과 비용 증가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이로 인해 스팟화물 중심의 우선 선적 관행과 계약화물 홀대가 심화되면서, 우리 기업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임 연동 및 스페이스 보장 조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복수 선사와의 다자 계약구조로 특정 노선 및 선사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
- 또한 산투스항, 부에노스아이레스항 등 혼잡한 항만을 피하기 위해 인접 국가의 환적항 경우 등을 통해 유연한 물류 흐름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

폭스바겐, 베니스 항에 차량 물류 허브 구축

- ▶ 폭스바겐 그룹은 이탈리아 베니스항(Venice Port)에서 차량 수출입 물류 거점 운영 예정
 - 본 프로젝트는 폭스바겐 그룹(Konzernlogistik)이 북아드리아해 항만청(AdSP MAS), 베자니 터미널(Vezzani Terminal)과 협력해 진행 중이며, '25년 10월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
 - 터미널은 포르토 마르게라(Porto Marghera) 지역에 위치한 구 시르마(Sirma) 항만의 27헥타르 규모로 5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해 최대 12,000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롤온/롤오프(Ro-Ro) 물류 허브로 재개발될 예정임
 - 본 터미널은 적재 및 하역뿐만 아니라 보관, 유통, 터미널 운영 및 복합운송(Intermodal Logistics)을 포함한 물류 기능도 수행할 계획임

폭스바겐 베니스항 신규 자동차 터미널 개장



자료: <https://www.automotivelogistics.media>(검색일: 2025.6.10.)

- ▶ 최근 유럽 북부 주요 항만은 저장 공간 부족, 선박 정체,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, 폭스바겐 그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망 전반을 재설계 중
 - 베니스항을 통해 물동량을 전환할 생산기지는 독일 남부의 아우디(잉골슈타트, 네카르줄름), 포르쉐(슈투트가르트 인근), 체코의 슈코다,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, 헝가리 죄르의 아우디 공장 등이 포함됨
 - 베니스~아시아중동 항로는 북유럽 대비 항로가 짧아, 운송 시간 및 선박 CO₂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특히 수에즈 운하 항로가 정상화되면 베니스의 전략적 이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폭스바겐 그룹의 Peter Hörndlein 물류 담당 책임자는 “베니스항 거점 확보는 폭스바겐 그룹의 물류 유연성 및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, 동시에 비용과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”이라고 설명
- 본 터미널은 독일 남부 및 중앙유럽 생산공장의 물류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철도 수송을 확대하며, 아시아로의 선적 기간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전망
 - 베니스항은 내륙 교통망과의 우수한 연계성을 갖추고 있으며, 열차 하역용 철로 3선, 주요 공장과의 짧은 내륙 운송 거리, 별도 접안 구역 등을 갖추고 있어 병목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 기존 독일(엠덴, 브레머하펜, 쿡스하펜), 벨기에(제브뤼헤), 스페인(산탄데르, 바르셀로나), 슬로베니아(코페르), 포르투갈(세투발) 등의 항만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남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
- 북아드리아해 항만청(North Adriatic Sea Port Authority)은 이번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자동차 물류 부문 성장을 위한 자사의 지원 의지를 강조
 - 항만청은 총 6,000만 유로를 투입해 서부 산업 운하(West Industrial Canal)를 위한 철도 교량 건설, 비아 델레트리치타(Via dell'Elettricità) 확장, 비아 델라 키미카(Via della Chimica) 교차로 개량, 베니스 마르게라 스칼로(Venice Marghera Scalo) 역 확장 등을 추진 중이며, 해당 역은 하루 최대 40편의 열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음
 - 이와 같은 인프라 확충은 베니스항이 상부 아드리아해 지역의 복합운송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automotive-logistics.media>, <https://www.maritime-executive.com>, <https://www.trasporto-europa.it> (검색일: 2025.6.10.)

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』 모집 공고

2025년
해외물류시장
개척지원 사업
모집 공고

2025. 5. 26(월) - 6. 27(금)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』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제출 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
국제물류 정보포탈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에서
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(hjsung@kmi.re.kr) 제출

문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김동환 센터장
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
성현정 전문연구원
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사업 개요

1.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
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자본투자)
-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
지원내용
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
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
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금액

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 (최대 **1억원**)
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 사업

해외물류거점 확보(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), 수출입 물류공급망
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, 현지 물류시장 조사 등에
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
직접비용(인건비, 국외출장비, 컨설팅비 등) 지원

지원금액

✓ **물류기업 단독 수행** 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 (최대 **3천만원**)

✓ **화주·물류기업 컨소시엄** 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 (최대 **4천만원**)



『우리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
2025
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
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

2025.06.02(월) - 09.05(금)

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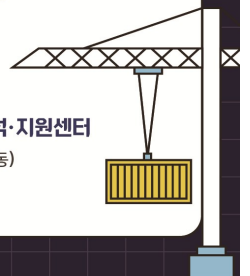
- [물류정책기본법] 제38조 및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)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- [항만법] 제2조 제4호 및 [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]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*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(물류창고)로 인증 신청
-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
 -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
 -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
 - 국내의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
 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인증기준 및 절차

-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[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]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'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'에 따른다
- 최종 결과발표(예정) : 2025년 12월 중

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방법 : e-mail 접수(아래 메일 주소 참고)
- 신청 수수료 납부
 - * 신규 인증 : 300만원
 - * 납부 계좌 :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
- 문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 - *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 - * 문의 :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